

포털 검색 무기로 기업 괴롭히는 매체 '아시아뉴스통신'과 '데일리환경'의 온라인 횡포



최근 광양 주상복합건물 시공사는 아시아뉴스통신 소속 조모 기자에 대해 사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언론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기업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기자 신분을 빌미로 채용과 하도급 청탁 등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대기업이 횡포를 부린다고 악의적 기사를 계속해서 보도하였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홍보담당 부장은 얼마전 황당한 경험을 겪었다. 잘 알지 못하는 인터넷신문 기자가 갑자기 연락을 해와 “얼마짜리 기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알아서 잘 하라”는 내용이였다.

또다른 기업의 한 언론 담당자는 취재와는 무관한 협찬을 부탁하는 전화를 해서 기자가 계속해서 반말을 하길래 “김기자님 근데 왜 저한테 계속 반말을 하시지요” 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놀랍게도 “아 이 XX 봐라”였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기업 협박

포털을 등에 업은 일부 매체사들의 보도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기업들의 광고비가 크게 줄어들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업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 환경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다 보니 포털에 검색된다는 것이 기업의 홍보담당자를 괴롭히는 하나의 훌륭한(?) 무기가 되고 있다. 예전 같으면 무시하면 그뿐이었지만 최근에는 이도 여의치가 않다.

인터넷의 특성상 한 번 기사가 보도되면 팩트의 사실여

〈표 1〉 아시아뉴스통신 대림산업 관련 보도

날짜	기사제목
4월 23일	광양대림e편한세상 신축현장, 지역 경제 도움 안돼... 노동자 크게 반발
5월 7일	광양시, 대림산업e편한세상 하도급사 현황 파악 안돼
9월 26일	광양대림e편한세상 안전 불감증... '하도급 선정 잡음'
10월 28일	광양대림e편한세상 지적보도 후 대림산업의 한심한 작태

부와 상관없이 순식간에 SNS나 카페, 블로그 등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가공되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전파되기 때문이다. 악의적인 기사가 포털에 게재되는 순간 기업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들도 이 점을 뻔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론보도닷컴에서 지난 4월부터 광고주들이 주목하는 언론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해 본 결과를 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하다. 이들 언론사들은 대부분 기사를 해당 기업의 홍보실을 직접 겨냥해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일종의 오퍼 또는 전문경영인 관련 부정적 기사로 밀박을 던져놓고 홍보실의 반응을 살펴보는 식이다.

또 △기사의 팩트와 상관없이 제목 및 사진에 해당 기업의 오퍼를 끼워넣거나 △소비자 고발난 또는 사이트를 개설 기업의 흠집을 보도하고 △기사 수정 및 삭제를 이유로 금품 및 협찬을 요구하거나 △오프라인에 악성 기사를 게재한 후 포털 미제재 및 삭제를 조건으로 협찬을 강요하고 △악성 기사를 제목 및 내용을 우라까지 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도하며 △자매지를 통해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재하거나 △타사의 부정적 기업관련 기사를 베껴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포털의 자정 노력 없이는 해결 불가능

광고주협회 회원사의 불만이 많이 제기된 데일리환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에너지와 환경 분야 전문지를 지향하는 이 신문은 발행인과 편집국장이 기업관련 부정적(?) 기사의 대부분을 직접 작성하고 있다.

12월 15일 김영민 기자(편집국장)의 ‘조현아 사태 닮은 꼴 계토의 색’ 기사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한 개인의 잘못에 대해 마녀사냥식 관련보도는 차치하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 중 바르샤바 계토(유대인 강제 거주지역)에 있었던 이른바 유대인 절멸 정책과 조현아 사태를 빗댄 기사는 단순히 어뷰징 목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언론의 정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기업에서는 언론 생태계의 최정점에 있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들 언론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포털의 영향력이기 때문이다. 포털이 건강한 미

〈표 2〉 데일리환경 최근 기업관련 보도 내용

날짜	기사제목
10월 14일	정몽구 회장 ‘엄치’없는 행동에서
10월 15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토사구팽’ 시나리오 본격화
10월 16일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원정 출산 논란 ‘시골’
10월 21일	권인태 파리카라상 대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뻔’격
11월 19일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 금천 현대아울렛 불법 지나쳐
11월 26일	민정(최태원 회장 둘째딸)씨는 심청이(?)
12월 1일	삼성건설, 시공능력 ‘위’ 안전환경의식은 ‘꼴찌’
12월 2일	보미건설, 서울 중구 M호텔 현장 환경오염 ‘나몰라라’
12월 4일	갑(甲)의 횡포 ‘롯데건설’... 5년째 하청업체와 분쟁 ‘구설수’
12월 8일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행위 꼬여만 가는 한진그룹
12월 9일	조현아 부사장 발언 조중상 노조원들 뺐났다
12월 9일	대한항공 오퍼의 횡포, 해당 사무장 정신적 충격
12월 10일	일파만파, 땅콩회항 조현아 부사장 거짓말까지 강요
12월 10일	조현아 부사장, 알고 보니 호텔 직원도 폭행
12월 11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월권 논란 검찰수사로 확대
12월 12일	고개 숙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12월 15일	조현아 사태 닮은 꼴 계토의 색

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썩은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언론사들을 지금처럼 그대로 방치한다면 포털은 사이버 언론이 마음껏 활약하는 탈법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최소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기업이 해명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기업의 반론이 있는 기사라는 것을 함께 명시하거나 해당 기업의 해명을 함께 게재하는 방안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겨레신문 정석구 편집인이 쓴 칼럼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껏 많은 언론은 독자를 광고비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기업들을 압박해 막대한 광고비를 사실상 강탈해왔다는 지적이다. 언론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우리 모두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KAA**